

전력신기술 지정업체 탐방 - 보성파워텍(주)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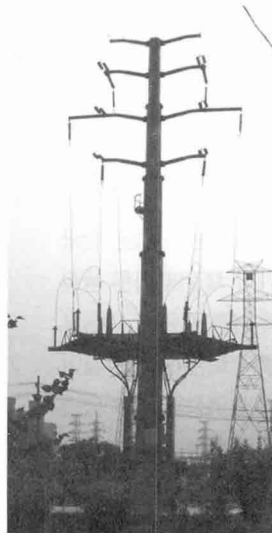
1월부터 전력신기술 지정업체를 소개하는 탐방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보성파워텍(주)(회장 임도수)은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전력산업의 초석인 각종 전력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전력기자재 종합메이커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력산업과 맥락을 함께하며 발전해 온 코스닥 등록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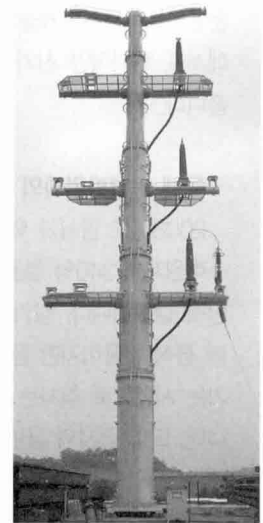
지난 1991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옥외용 가스차단기, 건식형 중성점 접지리액터, 타임스위치, 대용량 전선휴즈, 가공선지지대, 송전선로용 썬기형크랩프, 낙뢰표시기, 건식형 분로리액터, H형 스틸 폴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 전력산업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기술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의 우수기업인 키포전기(日), ABB SACE(이태리), 아사히전기(日), 레이컴(美), 버트렐(美)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그들의 선진기술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외의 KS, NT, ISO9001, ISO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철구조 분야의 수주물량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충주시에 2만 3,000평 규모의 철구조물 전문 제작공장을 매입, 전력철구조사업과 건설 분야 철골사업을 융합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 향상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케이블헤드 수평배치 강관철탑]



[케이블헤드 수직배치 강관철탑]

[기존제품과 신제품의 차이점]

구분	기존 제품	신제품
장 점	- 케이블헤드 포설이 용이하다.	- 설비 점검이 가능. - 설치 면적 감소 - 외관이 미려하다. - 안전성이 우수 - 환경친화형 구조물
단 점	- 승탑 점검이 곤란하다. - 설치 면적 크다. - 구조물의 중압감에 의한 민원 발생.	- 케이블헤드 포설 시 안전에 주의 필요.
중 량 (기당) H : 22m	62.0 Ton	56.0 Ton
설치 면적 (㎡)	192 ㎡ (16m x 12m)	120 ㎡ (12m x 10m)

※ 기존제품비교는 보성파워텍(주)에서 생산된 기존 제품과의 비교임

강관철탑 개발로 전력신기술 지정

보성파워텍은 지난해 ‘154kV 케이블 헤드 수직 배치형 강관철탑’을 개발, 전력신기술 61호로 지정받았다.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지시물은 현재까지 주로 철탑을 사용하여 왔으나 철탑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부지면적이 필요하고, 설치 후 구조물에 대한 중압감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지중 송전선로 건설이 증가되고 있다.

지중 송전선로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심지 주택가 및 특수 환경 조건 등의 경우에만 지중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외부의 가공 송전선로와 연결은 케이블헤드 철탑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블헤드 지지물로는 주로 철탑, 철구, 강관주로서 등변 산형강 또는 강관의 재료로 여러 개의 부재를 조합한 구조물을 사용한다. 도심지 인근 및 미관이 고려되고 환경친화형이 요구되는 특수지역에서는 강관주가 사용된다.

이러한 기존의 철탑은 하부의 케이블헤드를 설치하는 구조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선하지 변경에 의한 보상 필요 및 민원발생과 충전부와의 안전거리 부족으로 인한 승탑 점검이 불가(지상에서

확인)하며, 주택가 부근의 케이블헤드 강관철탑은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발된 케이블헤드 강관철탑은 강관철탑 암에 각각의 플레이트(PLATE)를 설치, 플레이트에 케이블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했다. 가공전선의 인하선 절연거리 확보 및 피뢰기를 애자련이 설치된 암 종단에 배치하고 케이블 강관철탑 외부에 트레이를 설치, 선로의 안전거리 확보 및 선하지 축소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원 해소에 대한 기대치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과 계약체결, 원자력 건설 분야 진출

보성파워텍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한 신고리 원전 #3,4호기용 철골 약 2만5,000톤의 공급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335억원의 수주액은 회사 창사 이래 단일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연간 매출액의 5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번 수주를 위해 1년여에 걸쳐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내진 1등급 강구조물 제작인증을 획득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구조용 철골(STRUCTURAL STEEL) 유자격공급업체 자격을 취득해 등록했다.

보성파워텍은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으로 명실상부한 강구조 철골업체로 거듭나게 됐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기 발주한 이태리 FICEP사로부터 플랜트 NC 가공기와 일본 다이토(DAITO)사로부터 H빔 홀가공용 NC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를 강화할 관련 인원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건설 분야의 본격적인 진출을 계기로 이후 원자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급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참여한 칠레 누에바 발전소와 더불어 강구조물 플랜트 사업을 정착, 올해 1,000억원대의 매출목표를 달성해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고객 만족을 위한 기업’

보성파워텍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체질 강화, R&D분야 투자, 영업력 배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준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플랜트 철골 생산라인을 충주공장에 확장함과 동시에 환경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등 매출규모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보성파워텍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고객 만족을 위한 기업이 되도록 기업문화를 구현해 갈 것이다.

(홍보실 양 승 수)